



2026 VISION

흔한 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힘든 일이 지나간 뒤 “내가 그때 어떻게 버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시험 때문에 지쳤던 시간, 친구 관계가 힘들었던 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내가 강해서 버틴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다윗의 인생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했고,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자신의 죄로 큰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강한 원수들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큰 죄를 지었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무엘하 22:1~25절 다 같 이

설 교 내가 버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 혼자 버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세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나요?
2. 힘든 일을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